

<2014년 11월 16일 주일말씀> 생방송

깨닫고 알아라

본 문 시편 49편 20절

『존귀하나,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』

할렐루야!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일입니다.

여러분 모두에게

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.

<11월 셋째 주 주일>입니다.

오늘은 ‘**깨닫고 알아라.**’ 라는 주제로

성자가 주신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.

오늘은 선생이 부흥강사에게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고,

전 세계 생방송으로 외치게 합니다.

귀한 말씀이니 잘 듣기 바랍니다.

교역자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,

이어서 수요일에 말씀을 잘 전해 주기 바랍니다.

말씀을 들을 때

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<말씀 시작>

- * 오늘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
먼저 선생이 겪고 성자에게 배운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>

- ◆ 월명동 청기와집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,
큰 바위 위에 소나무 두 그루가 나 있습니다.

하나는 작고,
다른 하나는 소나무 둘레가 머리 둘레만 하게 큼니다.

선생은 늘 사람을 보내서
그 소나무들을 가지치기도 해 주면서 몇 달 동안 가꾸었습니다.

- ◆ 이 소나무를 발견한 때는 약 25년 전입니다.
그런데 때가 되어 요즘 들어 가꾸 주면서 신경을 썼습니다.

신경 쓰고 가꾸 줄수록
더 아름답게 보이고 가지가 멋있었습니다. <끝>

- ◆ 성자에게 말했습니다.

“신경 쓰고 가꾸 줄수록 소나무가 더 아름답고 멋있어졌습니다.

그 바위와 소나무들이

제 집인 청기와집 앞에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.

그런데 **저 바위**는 평생 옮길 수가 없으니 아쉬워요.” 했습니다.

그때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

“그냥 거기에 두고,

<집 주변 환경 작품>으로 보면 되지.” 하셨습니다.

- ◆ <집 앞에 있는 소나무들>은 보통으로 보였고,
<집에서 떨어져 있는 바위 술들>은 금같이 귀히 보였습니다.

- ◆ 선생은 성자와 수시로 ‘큰 바위 위의 소나무’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집을 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.

이에 성자는 말씀하시기를

“네가 그 바위와 소나무들을 귀히 보니,

그것들이 마치 벼슬이나 한 듯

밤낮 좋아서 춤을 춘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실은 <집 앞에 있는 소나무들>이 크기가 더 큼니다.
하나는 ‘홍송’ 이고, 그 외의 6~8주는 ‘흑송들’ 로서 귀합니다.

그래도 <집에서 떨어져 있는 그 바위 술들>이

그리도 귀히 보였습니다.

- ◆ 선생은 집에서 떨어져 있는 ‘큰 바위 위의 술들’ 이 보고 싶으면,
사람을 시켜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했습니다.

그리고 ‘그 바위와 소나무에 얹힌 사연’ 을

관리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.

그랬더니 관리자들이 내 말을 듣고 수시로 그곳에 가서 보고는

“정말 멋있네요!!” 했습니다.

- ◆ 그런데 ‘**두 소나무**’ 는 갑자기 ‘**금 소나무**’ 같이 위해 주니,
그 영광을 감당하기 힘들었는지
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더 크려고
밤낮 몸부림을 치는 것같이 보였습니다.

그러나 바위 위에서 난 술이라서 10년을 커도 별 표가 안 납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2>

- ◆ 선생은 사진으로 ‘그 두 소나무’ 를 보면서

“너 술아.

바위틈에 흙도 없는데, 어떻게 맨 뿌리로 바위에 붙어사느냐.

진짜 대단하다.

너 같은 집념이면, 그 어려운 <휴거>도 되겠다.”

하고 칭찬했습니다. <끝>

- ◆ 선생은 **세 달 동안** 이 소나무 사진을 보면서 감탄하고,
성자에게 그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.

이에 성자는 **세 달 동안** 내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셨습니다.

“그 소나무들은 큰 바위 위에서 났기에 사람은 절대 못 옮기지만,
나 성자가 바위째 들어다가 네 집 앞에 갖다 놓으면 좋겠지?”

그 말을 듣고 선생은

“성자가 하셔도 그것은 불가능하지요.” 했습니다.

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

“깊이 기도해 보아라.

그러면 네 소원보다 더 좋게 이루어진다.

네가 생각하면서 깨달아 보아라.”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- ◆ 그 후 선생은 깨닫기 위해 깊이 기도하면서
성자에게 ‘그 소나무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.

- ★ 성자와 대화하다 보니,
성자께서 깨닫게 하신 <잠언>이 뚜렷이 생각났습니다.

<영상3> 『사람이고 만물이고 가까워야 더 가치가 있고,
가까워야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더 느낀다.』

- ◆ 이 <잠언>이 생각나면서 깨달아졌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4> 중요

- ★ 사람도 가까워야 이웃사촌 된다.

- ★ 땅도 집에서 가까워야 문전옥답이다.

- ★ 성자 앞에도 성자와 최고로 가까운 자가
지구 세상에서 최고의 사명자가 되어
최고로 많이 성자를 느끼고, 최고로 큰 자가 되고,
최고로 가치 있는 자가 된다.

★ 가까운 자에게 ‘사랑’ 이 가고, ‘운’ 이 간다.” <끝>

- ◆ 이렇게 뜨겁게 감동이 오고 깨달아지면서,
<집 앞의 소나무들>이 선연히 생각나고 보였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5>

- ◆ <집 앞의 소나무들>도
역시 ‘바위 위’ 에 서 있다는 것을 순간 인식했습니다.

바위 위에 흙이 있기는 하지만 위에만 약간 흙이 있지,
그 소나무들도 ‘바위틈’ 에서 나서
‘바위틈’ 에 뿌리를 박고 크고 있습니다.

<집 앞의 소나무들> 역시
바위 위에 서 있는 ‘바위 솔’ 입니다. <끝>

- ★ 깨닫고 나니,
<안 보이는 솔>보다 <보이는 솔>이 마음으로 더 느껴졌습니다.

<떨어져 있는 바위 솔>보다
<가까이 있어 손에 닿는 솔>이 더 생각나고 더 느껴지고
그 향기도 마음에 또렷하게 치솟으면서 감동했습니다.

- ★ 깨닫고 나니,
“<집 앞에 있는 솔들>이 더 ‘금 같은 솔’ 이다.”
하고 ‘인식’ 이 뒤바뀌었습니다.

- ★ 이때, 감탄하며 성자를 부르면서 고백했습니다.

“제가 세 달 동안 그렇게도 좋다고 했던 두 소나무보다
집 앞에 있는 소나무들이 더 금같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”

이에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

“그것이 곧 ‘깨닫는 것’ 이다. ‘깨달음’ 이다.

깨달았다는 것은

‘은’ 같이 보이던 것이 ‘금’ 같이 귀히 보이는 것이다.

깨달았다는 것은 인식이 뒤바뀌었다는 것이다.

깨달았으니, 다시 비교해 보아라.”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6> 중요

◆ 비교해 보니

<집에서 떨어져 있는 바위 술들>은 ‘그 위치의 작품’ 이고,
사연도 별로 없고, 평범하고,
<집 앞의 술들>과 비교했을 때 별 볼품이 없고 초라했습니다.

◆ <집 앞의 술들>이 더 크고 멋있었습니다.

또 긴긴 세월을 두고 내 집 앞에서 컸으니 사연도 있고,
가까이 있어 눈에 보이고, 술향기가 방 안까지 진동합니다.

- ★ 이제 <집 앞의 소나무들>이 ‘금 술’ 로 보였고,
<그 소나무와 붙어 있는 바위>가 ‘금 바위’ 로 보였습니다.
<집에서 멀리 있는 바위와 소나무들>은 ‘은’ 같이 보였습니다.

◆ 깨닫고 보니,

<집 앞에 있는 술들>이 사연도 그리 깊은 기적의 술이었습니다.

<집 앞에 있는 술들>은 산맥이 <기도동산> 쪽으로 이어져
기(氣)가 팡팡 솟아났습니다.

- ◆ 깨닫고 <집 앞에 있는 소나무> 밑을 깨끗이 쓸어 내니,
한 덩이 바위 위에서
소나무가 70년이 넘게 크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,
그 소나무의 뿌리가 바위를 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

★ 깨달으면, 이같이 ‘인식’ 이 뒤바뀌게 됩니다. <끝>

- ◆ 깨달으니 바로 보이고, 근본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.
그리고 성자에게 말했습니다.

“만일 성자께서 <저 바위 위의 두 소나무>를 들어다가
우리 집 앞에 갖다 놓고,
<집 앞에 있는 소나무들>을 저 멀리 갖다 두면 좋겠다 하셔도
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.” (했습니다.)

→ 이것이 ‘바로 깨닫고 안 것’입니다.

- ◆ 모두 깨닫고 알고 살라고, 성자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.

<전환>

- ◆ 이날 선생은 깨닫고, 회개했습니다.

“저는 성자의 시중을 드는 자로서 좀 안다고 하는 자인데,
이런 것 하나 가지고 **세 달이나**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
제가 본 것이 그리도 좋다고 하며 귀가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.

제가 깨달을 때까지 성자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?
진정 회개합니다.

육적으로 생각해서 그랬습니다.

육적으로 생각하니,
<가까이 있는 것>보다 <멀리 있는 것>을 더 귀히 봤습니다.

영적으로 깨달으니, 근본을 알게 됐습니다.”

하고, 나의 무지를 탄식하고 개탄하고 뉘우치며
심정의 눈물의 강을 이루며 회개했습니다.

- ◆ 깨달아도 ‘**육적**’으로 깨달으면 큰일난다는 것도
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.

물건을 살 때도 깨닫지 못하고 사면,
‘좋은 것’을 못 사고 ‘나쁜 것’을 사 놓고 좋아합니다.

- ◆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다루면
각종 실수를 해도 모르니, 선생이 대신 회개했습니다.

- ◆ 깨닫지 못하고 살면
육신 일생 동안, 영 영원히 너무나도 큰 손해가 갑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* 성자는 내 회개를 듣고 말씀하셨습니다.

“내가 ‘나 성자의 생각’ 을 바로 알고 깨닫고 회개했으니,
이제 그것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더 깊이 해 주겠다.”

이 말씀이 오늘 성자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
진정 깨닫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.

잘 듣기 바랍니다.

<성자의 말씀>

◆ <육>이 깨달으면, **육의** 것만 깨닫고 **육의** 허무만 깨닫는다.

시대 말씀을 듣고 ‘내 육으로 쓰는 구원자’ 를 깨달았으나,
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‘육적’ 으로 깨달은 자들이 아직도 많다.

신약 때도 ‘예수’ 를 깨달았으나 ‘**육적**’ 으로 깨달았기에
예수는 결국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.

이 시대도 그러하다.

너희가 ‘내 육으로 쓰는 구원자’ 를 ‘**육적**’ 으로만 깨달았기에
결국 내 육은 시대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.

◆ <깨닫는 것>은 ‘두 가지’ 다.

첫째, **육적**으로 깨닫게 되고 / 둘째, **영적**으로 깨닫게 된다.

<영>은 <육>보다 차원과 수준이 훨씬 더 높다.
고로 깨달을 때는 ‘영적’ 으로 깨달아야 된다.

◆ 신약시대를 보아라.

예수를 제대로 깨달은 베다니의 한 여인을 보아라.
그 앞에 향유가 든 옥합을 붓고 제대로 알고 따랐다.

그러나 예수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막았다.
무지하여 **나 성자의 마음**과 **구원자의 마음**을 거스른 것이다.

◆ 또한 우상을 섬기며 사는 자들을 보아라.

깨닫기는 하는데 ‘육적’ 으로 깨달아
전능자 삼위일체를 깨닫지 못하고
“인생은 허무하다.” 하며 <허무주의>만 깨닫고 산다.

◆ 저 인간 우상 종교들을 보아라. 이단을 보아라.

‘육적’ 으로 깨달으니, 사람을 중심하여 섬기고
성경을 그릇되게 풀고 자신들이 옳다고 한다.

◆ <육>으로 눈을 떠서 깨닫고 좋아하지만

<영>으로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야

‘금’ 이라고 했던 것이 ‘은’ 이고
‘은’ 이라고 했던 것이 ‘금’ 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.

(하고,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)

◆ 생각해 보세요.

‘금’ 을 ‘은’ 으로 알고 살고,
‘은’ 을 ‘금’ 으로 알고 살면 얼마나 손해입니까?

그래서 깨달아야 <육>도 10배, 100배 유익이고,
<영>도 영원히 유익입니다.

◆ 누가 자기 배우자인지 못 깨달아서
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살게 됩니다.

깨닫고 나면 놀랍니다. 충격입니다.

모두 이와 같으니, 진정 깨닫고 알고 행해야 됩니다.

◆ 깨달았다는 것은 100% 근본을 알았다는 것입니다.

은과 금이 있는데 은을 금이라고 생각했었으나,
은같이 보였던 것이 금같이 보이게 된 것을 말합니다.

◆ 성자는 말씀하시기를

“베드로가 자기 선생 예수를 제대로 깨닫고
『주는 그리스도시요,
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』 하고 고백하듯이

나 성자와 내가 보낸 구원자를 ‘영적’ 으로 깨달아야
그릇된 주관이 바뀌어 지금 휴거때 묶인 쇠고랑이 풀린다.”

하셨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★ 섭리사에 가장 귀한 것 중 하나가 보낸 자 바로 알기입니다.

- ◆ 시대 구원자를 깨닫기는 했으나
영적으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
섭리사에 온지 오래됐으나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.

- ◆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

“내가 보낸 자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을 두고 말한다.
배워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은 지식이다.
이것은 깨달은 것이 아니다.

시대 말씀을 듣고

‘나 성자와 내가 보낸 자’를 확실히 깨달은 자는
나 성자도, 내가 보낸 자도 달리 대하니
대하는 것을 보면 다 안다.” (하셨습니다.)

- ★ (첫째) 진정 ‘주’를 깨달았다면,
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무지를
개탄하고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.

그때 인식이 확 뒤집어지면서, 행실과 생각이 뒤집어집니다.
그리고 삶이 달라집니다.

- ★ 깨달았다는 것은 인식이 뒤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.

(그러므로 둘째) 진정 ‘자기를 구원할 자’를 깨달았다면,
‘인식’이 뒤바뀌고 ‘마음과 행실’이 모두 뒤바뀌어
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재촉하면서 행하게 됩니다.

★ (셋째) 진정 ‘성자와 보낸 자’ 를 깨달은 자는
성자와 그 육에게 자기 죄를 확실히 고백합니다.

*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

◆ 나 성자가 보낸 자를 깨닫지도 못하고

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달라고 하면,

나 성자가 내 육을 통해 죄를 사해 주겠느냐.

죄는 나 성자가 내 육을 통해 근본으로 사해 주는 것이다.

너희는 나 성자와 못 통하니

너희가 죄를 회개했어도 정말 용서받았는지를 알 수 없다.

나와 통하는 내 육을 통해

“아직 회개가 깨끗이 안 됐다. 더 회개해라.” , 혹은

“용서는 해 주지만, 의의 조건을 세우고 올라와라.

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행위를 해야 회개된다.” 하고

시원스럽게 말해 주는 것이다.

◆ 그런데 본인은 계속 그 죄를 짓고 살면서

말로만 죄를 고하면 용서받는 것으로 그릇 알고 있다.

어떤 사람은 10년, 20년, 30년 동안

내가 보낸 자를 속이며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.

그런데 한마디로 죄를 고한 것을 가지고 죄가 청산되겠냐.

◆ 이성 죄도, 기타 죄도

내가 보낸 자를 속이고 계속 그 죄를 짓는 자는
그 죄 속에 있는 자다.

- ◆ 그동안 전능자의 속을 썩이며 죄를 지었으니,
본인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
의의 조건을 세우며 올라와 ‘행실’로 보여 주고
나 성자와 내가 보낸 자에게 죄를 고백하니,
그 고백을 듣고 용서해 주는 것이다.

깨닫고 행해라. (하고 말씀하셨습니다.)

*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.

- ◆ 자신의 죄를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낱알이 고해라.
자기는 죄인이니 의인의 이름으로, 내 육의 이름으로 고해라.

그가 시대의 죄와 너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,
이 시대를 위해,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.

고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나 성자 앞에 나아와라.

- ◆ 모두 이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건만,
지도자들도 이것을 모르니 죄만 고하라고 가르친다.

- ◆ 말씀을 듣고, 스스로 <회개>에 대해 깨달아라.

이러한 여러 가지 모순으로 인하여
휴거될 자들이 중간에서 발이 묶여서
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.

오늘 나 성자의 말을 듣고 모두 깨달아라. (하셨습니다.)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- ◆ <깨닫는 것>은 마치 자기가 시험을 볼 때
“이것이 답이다!” 확실히 알고 감탄하면서
확실히 아니까 즉시 답을 쓰듯 하는 것입니다.
- ◆ 만일 옷이나 물건을 사러 가서
‘진짜 좋은 것’ 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면,
누가 사 갈까 봐 꾸물대지 않고 즉시 사게 됩니다.
- ★ 이와 같이 깨달으면, 즉시 행하게 됩니다.
고로 행하지 않는 자는 깨달은 차원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.
- ★ 깨달았다면, 즉시 행하지 않고서는 못 배깁니다.

주를 진정 깨달았다면, 따르지 않고서는 못 배깁니다.

주를 진정 깨달았다면,
누가 뭐라 해도 주 앞에서 절대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.
- ★ <아는 것>은 ‘육’ 으로만 아니 즉시 행해지지 않고,
알았다가도 등을 돌려 떠나게 됩니다.

그러나 <깨닫는 것>은 육도 혼도 영도 아니,
확실히 알고 즉시 실천하게 됩니다.
- ◆ <육>이 깨달으면 육이 유익을 얻고,

<영>이 깨달으면 근본을 아니
육도 혼도 영도 온전한 유익을 얻습니다.

- ◆ 깨달아야 ‘영’ 이 온전히 알고 휴거됩니다.

*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

- ◆ 섭리사에 와서 주를 5년, 10년, 20년 따랐어도
깨닫지 못했기에 섭리사를 나가서 악평하고 반대한다.

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,
전능자의 역사를 반대하고 영혼들을 사냥하니,
예정대로 그 행위대로 갚아 주고 있다.

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으니, 이제 영원히 돌이킬 수도 없다.

- ◆ 그러므로 깨닫고 행해라.
성령으로 깨닫고, 나 성자의 생각으로 깨달아라.

내 분체도 기도하고 깨달으니,
‘더 좋은 것’ 을 바로 알게 되었다.

못 깨달으면, 깨달을 때까지 손해가 가고 고통을 받고
더 나쁜 것을 더 좋게 여기고 살게 된다.

- ◆ 분별하고 판단할 때, 제대로 깨닫고 판단해라.
<육>으로 깨닫고 판단하지 말고, <영>으로 깨닫고 판단해야 된다.

- ◆ 깨달은 자는
나 성자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고 나와 완전히 하나 된 자다.

깨닫지 못한 자는 일부만 나와 하나 된 자다.

★ 깨달아야 차원 높이 살게 되고,
깨달아야 마음에 시동이 걸려 뛰고 달리며 날게 된다.

★ <자기 때>가 되면,
나 성자는 내 육을 통해 말씀하고 감동을 주어 행하게 한다.

깨달은 자는 확실히 아니, 재촉하고 서두르고
밥을 먹는 등 마는 등, 잠을 자는 등 마는 등 하면서
‘그때 할 일’을 집중해서 해 버린다.

◆ 깨달은 자라도 첫사랑이 식으면
깨닫는 데 둔해지고 생명길을 잃게 된다.

고로 첫사랑을 지켜라!

◆ 나 성자가 지금
어느 지점을 가면서 말하는지 깨닫고 행해라. (하셨습니다.)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* <오늘 말씀의 핵심>을 짚어 주면서,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.

◆ <가까이 있는 술>이
좋은 공기를 주고, 여름에는 그늘을 주고,
눈에 가까이 보여 더 정이 가고 사랑이 가고,
가까우니 술향기를 맡게 된다.

★ 나 성자를 두고도 누구든지 작든지 크든지
내 손과 몸과 생각에 가까이 있는 자가 큰 자다. 귀한 자다.

★ 나 성자와 최고로 가까이 있는 자가 세상에서 금 같은 자다.
권세 있는 자다. 능력자다. 사랑하는 자다. 사랑받는 자다.

하나님도 성령님도 나 성자도
그를 ‘시대 구원자’로 보내고 그와 함께한다.

★ 깨달은 자가 가까이 느낀다.

한 그루의 소나무도 가까워야
좋은 향기와 좋은 공기를 주고, 늘 눈에 보여 사랑이 가듯,

나 성자와 내가 보낸 자와 가까운 자가
몸도 마음도 행실도 혼도 영도 일체 되어 산다.

★ 나 성자와 멀고, 내가 보낸 자와 멀면, 하나 된 것이 아니다.

자기 뜻대로 행하면서
“나는 성자와 주와 하나다.” 하지만, 자기 주장일 뿐이다.

★ 성자와 주를 알았다 하나,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는
‘좋은 날’에는 믿음과 사랑을 지키며 잘하는 것 같지만
‘시험의 날’에는 악한 자에게 끌려 다니고,
그들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치우쳐 믿음을 저버린다.

그리고 너도 그 이론을 배워 보라고 생명들을 피며
사탄의 육이 되어 행한다.

- ◆ 고로 지도자들과 증거자들은 부지런히 가르쳐 깨닫게 하여라.
모르는 자들의 ‘인식’ 을 뒤바꿔 놓아라.
‘진짜 금’ 을 ‘금’ 으로 보게 해 주어라.

- ◆ 깨달은 자, 휴거된 자가 가르쳐야 증거도 확실히 한다.

깨달은 자, 휴거된 자가 가르쳐야 입에서 <성령의 불>을 내뿜고
<나 성자의 뜨거운 말씀의 불>을 내뿜으며 뜨겁게 가르친다.

- ◆ 시대와 주를 확실히 깨닫고
악인들의 이론을 듣고도 넘어지지 않은 자들아.

너희는 나 성자를 알고, 내가 보낸 자를 깨달은 자들이다.

나의 편이 되어 악인들을 물리쳤구나.

너희에게 큰 상을 주었고, 또 앞으로도 주리라.

평생 주의 편이 되어 사는 자들이 되어라.

- ◆ 이제 섭리사에 왔더라도 진정 깨달은 자들은
어떤 말을 들어도 절대 등을 돌리지 않으며,
숨 가쁘게 시대를 증거하고 외친다.

끝까지 변치 말고, 나 성자와 함께 살자.

<말씀 마무리>

- ◆ 내가 보낸 자는 너희와 같은 ‘육’ 을 가졌으니,
먼저는 그와 가까이해라.

그래야 보다 쉽게 깨닫게 된다.

- ◆ 깨달으려 하기 전에, 깨달도록 먼저 기도해라.

그래야 나 성자가 내 육을 통해 하는 말을 깨닫고
나 성자의 영의 몸을 알게 되고
전능자 하나님도 성령님도 제대로 알게 된다.

- ◆ 너희는 내가 보낸 자를 통해서 나 성자의 말을 듣고 행하니,
날마다 <생명길>로 가면서 휴거되며 살고 있다.

그러니 얼마나 행복하냐.

더 깨닫고 속히 환난 전에 온전히 휴거되어라.

- ◆ 사랑하니 열심히 하여
남은 기간 휴거를 이루고, 시대를 증거해라.

- ◆ 서로 사랑, 서로 화평이다. 나의 평안을 빈다.
네 육과 혼과 영에게 ‘깨달음의 축복’ 을 주노라.